

# 광주 대학들, 문화로 말 걸기

## 지역 대학들 공연장 운영

대구 계명대 계명아트센터와 영남대 천마아트홀은 공연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다. 충남대 정심화홀도 인기가 높다. 이들 공연장들은 대학교 안에 자리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광주 지역 대학에 자리잡은 공연장들도 조금씩 시인속으로 다가오고 있다. 호남대는 소극장을 개관, 청소년들에게 무료 개방하며 전남대 전문 공연장을 준비중이다. 호신대 예음홀은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다.

호남대는 지난 25일 공연전용극장 '호남대 랄랄라극장'을 개관했다.

호남대 광산캠퍼스 복지관 3층에 자리한 '호남대 랄랄라극장'은 미디어영상공연학과 실습실로 사용됐던 액팅스튜디오를 3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했다. 150석 규모의 극장은 무대와 좌석을 허물어 마당극 형태에서 프로시니엄, 아레나, 풀출 등 다양한 스타일로 무대를 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목적 극장이다.

극장은 호남대 미디어영상공연학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레퍼터리 극단 '호남씨어터'의 상설 공연장으로 활용되며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기업인 호남대랄랄라스쿨(대표 정영기)의 공연영상분야 진로직업교육센터로 활용한다. 호남대랄랄라스쿨은 지난해 학교폭력예방 창작극 '나는 서툰이다'를 제작, 전국 20개 기관에서 순회공연을 열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 초·중·고생들의 연극과 뮤지컬 공연에 무료로 개방하며 지역 공연예술가 초청 공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대학교 대강당도 전문 공연장으로 탈바꿈한다.

1975년 건립된 전남대 대강당은 연면적 5011㎡에 1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장을 갖추고 있어 1991년 광주문화예술회관 개관 전까지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문화시설이었다. 하지만 시설이 낙후돼 최근에는 활용도가 거의 없었다.



25일 문을 연 호남대 '랄랄라 극장'은 초·중·고생들에 무료 개방한다. (호남대 제공)

## 호남대 '랄랄라 극장' 개관 지역 초·중·고 단체 무료 개방

### 전남대 강당 94억 투입 리모델링...예향홀·지음홀 눈길

### 호신대 예음홀 200석 규모 클래식 전용...녹음시설도 갖춰

전남대는 지난해 국회 예산 137억원을 확보, 본격적인 리모델링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최근 교육부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94억원으로 삭감되면서 극장 규모 등이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올해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 건물 외관 및 내부, 무대, 조명 등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2015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보다 리모델링비가 삭감되면서 대형 뮤지컬 등의 작품을 올리는

건 다소 무리지만 최고 음향 시설 등을 갖춰 오케스트라 공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대강당 공연장 로비 공간을 갤러리로 활용, 전시 기능까지 갖추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학교측은 예술대 교수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예술대에 자리한 351석 규모의 '예향홀' 역시 학생들 연주회 뿐 아니라 다양한 외부 공연이 열리는 공간이다. 지난달에는 전남대 내 독일 문화원 개관을 기념해 세계적인 아티스트 막시

밀리언 헤커가 공연을 가졌으며 지난 21일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연주회가 열리기도 했다.

114석의 '지음홀'은 규모는 작지만 몇년 전 리모델링을 거쳐 연주회를 갖기에 안성맞춤인 공간이다.

호남신학대의 '예음홀'은 작은 연주회를 열기에 좋은 장소다.

200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지난 2010년 리모델링을 과정을 거쳐 좌석 수를 줄이고 음향시설을 대폭 개선했다. 스타인웨이와 아마하 피아노를 갖추고 있으며 공연실황을 녹음할 수 있는 시설도 있다. 연주회 뿐 아니라 마스터 클래스, 콩쿠르 장소 등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지난해까지는 클래식 강좌 '풍당 클래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지난 2006년 4월 중순, 광주 나인갤러리에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불췌 나타났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였다. 한국에 부임한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한 그는 공식일정을 하루 앞두고 통역요원만 대동한 채 예술의 거리를 찾았다. 마침 개인전을 열고 있었던 서양화가 조근호는 TV에서만 봤던 'VIP'의 깜짝 등장에 적잖이 당황했다. 하지만, 그를 더 놀라게 했던 건 버시바우 대사의 진지한 자세였다. 조 작가의 작품을 유심히 둘러본 그는 소재에서부터 기법 등 이것 저것 세심하게 물어봤

키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아티스트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는 등 '적극적'으로 공연을 즐겼다. 지 총장이 공연 시작 후 10분 만에 서둘러 행사를 빠져나간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문화를 즐기는, 멋진 리더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높은신'들을 보기가 어렵다. 전시회나 페스티벌, 공연장을 '찾는' 리더들은 많지만 오픈링 행사 끝나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떠난다. 다른 일정이 있어

## '문화 뒤풀이' 즐기는 리더 없나요?

다. 사실 버시바우 전 대사의 예술사랑은 외교가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평소 퇴임 후 미술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게 꿈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할 정도로 그는 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개회사나 축사를 마치면 행사를 빠져나가는 게 '문화'가 돼 버렸다.

지난 18일 열린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4 광주 개막 공연이 그런 경우다.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오늘 만큼은 '끝까지 남아' 문화의 향기에 푹 빠져 보라"던 강운태 광주시장의 중간에 자리를 뜨자 상당수의 기관장이 공연장을 떠났다. 객석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것은 물론이다.

이렇듯 광주를 이끄는 리더들은 누구보다도 문화마인드를 갖춰야 한다. 전시회나 공연의 오픈링 행사에 참석해 '한 말씀'을 한다고 저절로 '문화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번지르르한 축사보다는 '뒤풀이 대화'로 문화현장의 목소리를 들도록 하자.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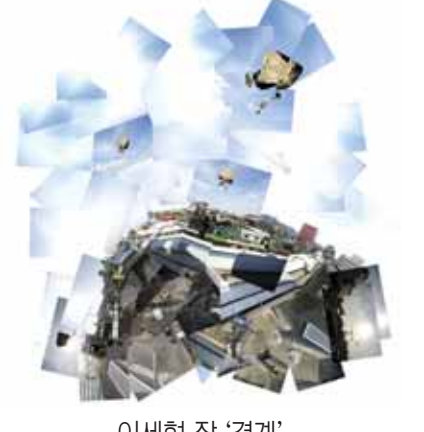
최근 기자는 문화생활을 즐기는 또 한 명의 멋진 '리더'(leader)를 만났다. 지난 14일 주한 독일문화원 광주지하센터 개원기념으로 전남대 예술대 강당에서 열린 독일 광 뮤지시 막시밀리언 헤커 축하공연에서였다. 주인공은 볼프 마파엘 주한독일대사.

지병문 전남대 총장과 함께 행사를 찾은 그는 1시간 30분의 공연과 뒤풀이에도 참석해 관객들과 대화를 나눴다.

물론 주한 독일대사관의 행사인 만큼 '수장'으로서 자리를 지

도 말고 한 달에 한번만이라도. (편협부국장·문화선임기자)

## 삶, 절망과 희망 사이 미테-우그로 '육상의 정치'전



이세현 작 '경계'

미테-우그로(Mite-Ugro)가 다음달 11일까지 '육상의 정치'를 주제로 장거살롱(대구), 스페이스씨(대전), 공간원(부산), 대안공간이포(서울)에 참여하는 연립전을 진행한다. 미테-우그로는 부제 '접경(接境)에서의 외침, 들리는가'를 가지고 김인정(사진), 이세현(사진), 이인성(설치), Brain cone(영상설치), Kiss the rain(작곡, 영상설치)의 작품을 선보인다. 김인정은 기자로 활동하면서 겪었던 사건의 뒷이야기를 사진으로 풀어내고, 사진 풀라주작

업을 하고 있는 이세현은 '경계' 시리즈를 통해 세상에 아무렇게나 던져지는 행위를 고찰한다. 이인성의 '바람 없이 깃발을 펴려는 방법'은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불균형에 대한 관계를 비판 한 줄 굵은 전시실에 설치한 작품이다. Brain cone은 작품 'Ice cream'을 통해 '인간이 인간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모습을 역설한다. 작곡가 Kiss the rain의 'tetris'는 스스로 만든 벽을 허물지 못해 몰락하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한다. /김경민기자 kki@



이인성 작 '바람없이 깃발을 펴려는 방법'

## 광주시립미술관, 오늘 뮤지엄 토크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은 문화가 있는 날인 26일 오후 6~7시 '물방울 화가 김창열의 작품세계'를 주제로 큐레이터와 함께한 뮤지엄 토크를 진행한다. 시립미술관에서는 오는 5월6일까지 김창열 화백의 작품 46점이 전시된다. 김창열 화백은 '물방울'이라는 대

상을 통해 동양 정신을 현대미술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립미술관은 초기 작품부터 최근 작품까지 전시된 김창열 화백의 대표 작품과 '큐레이터와 함께한 뮤지엄 토크'를 통해 작가의 예술세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의 062-613-7142. /김경민기자 kki@

www.kjhr.com

since 1982

#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독일,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특허번호: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형 탈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자연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